받아들여지지 않은 제안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김 효 철

1970년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전임강사로 발령 받았을 때에는 김희철 교수께서 학장으로 봉직하고 계셨으며 공과대학은 서울대 종합계획에 따라서 관악 캠퍼스로 이전이 확정되던 시기였다. 당시 해외로부터 젊은 과학자들이 연이어 귀국하여 국가 발전에 주역이 되었으며 공과대학에도 새로운 젊은 교수들이 부임하였다.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교류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공과대학은 국가발전에 발맞추어 역동적으로 변화를 거듭하게 되었다.

나는 선박의 성능을 실험적으로 평가하는 조선공학과의 핵심 연구시설인 선형시험수조의 계획에 참여하였으며 이것을 계기로 1977년부터 선박저항추진론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당시 전자계산기가 도입되어 거의 모든 분야에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조선분야에서는 선박의 저항을 전산기로 계산하는 것이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 되었다. 공과대학에 지금과 비교하면 보잘 것 없었지만 전산기가 도입되었기에 1979년에 워싱턴에서 미국해군연구소가 주관하는 International Workshop on Wave Resistance Computation에 계산 결과를 가지고 참여할 계획을 하였다.

1979년 늦은 여름 미국해군연구소로부터 발표논문 원고 독촉 전화를 받고서 미국에서 상당 기간 전에 발송한 서식 일체가 내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얼마 지난 후 내 이름이 H.C. Kim으로 표기된 우편물이 서울대로 우송되고 공과대학으로 옮겨져 분류하는 과정에서 인하대학교 총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김희철 교수의 우편물로 분류되어 기계공학과로 송달되었고 상당시간이 지나서 인하대학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원로 교수와 영문 표기를 같이 사용하고 있었던 까닭에 공과대학에 우편물이 도착하고서도 내손에 들어오기까지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시 원로 교수 중에 김희춘 교수께서도 영문 표기를 H.C. Kim을 사용하고 있었기에 유사한 우편송달 착오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도 알게 되었다.

국내에서 학위를 마쳤으며 일본에 선형시험수조를 살피러 다녀온 이후 처음으로 영어권에서 개최되는 행사에서 발표할 기회를 잡았었는데 우편사고로 실기할 형편이 되었던 것이다. 주최 측의 특별배려로 원고를 뒤늦게 작성하여 보내며 시간에 쫓기던 기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한 후에 젊은 신임 교수일수록 나와 같은 우편송달 지연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였기 때문에 우편물의 송달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

1979년 말에 공과대학이 관악캠퍼스로 이전할 때는 학과장으로 실무책임을 맡았으며 새로운 캠퍼스에서의 개최된 첫 번째 학과장 회의에서 참석하였을 때 기회라고 생각하여 개선안으로 대학 내 우편번호제도를 제안하였다. 어차피 모든 학과가 각종 인쇄물을 새로 마련하여야 하고 새 주소가 표기된 각종 비품을 새로이 마련하여야 하므로 공과대학이라는 표기 뒤에 교과과정에서 사용하는 학과 인식번호를 표기하고 이를 학내 우편번호로 사용하자는 제안이었다. 제안 설명에는 학내에 들어온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전달되기까지 거치는 단과대학으로 분류 전달하는 과정, 단과대학에서 학과로 분류 전달하는 과정이 합리화되리라고 피력하였다. 아무런 추가 비용 없이 합의만으로 새로운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피력하였으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1992년 영국의 뉴캐슬에서 개최된 선박설계 회의에 참여하기 위하여 런던에서 항공기를 갈아타게 되었다. 이때 한국으로부터 여러 참여자가 있었는데 좌석을 배정받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어 항공기 연발이 우려되었다. 현지 도착 후 일정차질이 걱정스러운 승객들의 항의로 다소 시간이 단축되었으나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 우리나라 참석자들은 가족과 헤어지고 심지어 배우자가 뒤바뀌어 자리 잡게 되는 일이 일어났음을 알게 되었다.

항공기 탑승에 문제된 것은 상당수의 한국측 참여자들의 성씨가 같았고 참여자들과 부인 성씨는 다른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공항에서 동반 가족까지 바르게 찾는 데 시간이 걸렸음을 뒤늦게 알 수 있었다. 마침 탑승객 중에는 H. C. Kim으로 표기하는 승객이 두 사람 더 있었으며 나는 영문 표기에서 H. C. Kim이 아닌 H. Kim으로 사용하여 조금이나마 혼동을 피하려 하여 왔으나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항공권이나 여권 그리고 신용카드에는 이름 두자를 분명하게 떼어 쓰는 것이 관행이어서 H. Kim이 아니라 H. C. Kim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였기 때문에 혼동이 일어난 한 원인이 되었다.

이 때의 경험으로 영문에서는 고집스럽게 이름전체를 표기 사용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머리글자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혼동을 줄이는 데 오래전에 생각하였던 학과별 식별번호를 사용하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다시금 보직 교수들에 구두로 제안한 일이 있다. 즉시 시행가능하고 도움이 되는 제안이라 하였으나 다시금 18년이 지나도록 대학 내 우편번호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어디인가 제도 시행이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대학 내 우편송달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는 데 학과별 우편번호의 부여가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어 명예교수회보를 통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은 제안을 다시 하는 글을 쓰게 되었다. 하지만 이 제안은 30년 전이나 18년 전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과 같이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학내우편제도 개선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